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77 호

2023년 4월 19일

- 목 차 -

### ■ 협회 소식

1. UNGC 한국협회 1 차 연합 실무그룹 미팅 결과 공유
2. Monthly Insights 4 월호 요약
3.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1 기
4. UNGC 한국협회 2023 정기총회 (4/6) 결과 공유
5.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보고서 국문본 발간

### ■ 본부 소식

1. UNGC 아카데미 심화과정: 기업 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평가
2. 2023 UN Water Conference 와 기업들의 약속

###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LG 디스플레이

## ■ UNGC & 회원사 뉴스

1. SK 실트론, UNGC 가입...ESG 경영 강화
2. 한국청과, 업계 최초 UNGC 가입
3. 포스코그룹, 여성 과장 23%...최고 경영진 여성 비율 급증 기대
4. 포스코건설, 포스코이앤씨 사명 변경
5.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전기차에 24兆 투자...“글로벌 판매 톱 3 목표”

##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UNGC 한국협회 1 차 연합 실무그룹 미팅 결과 공유

### [UNGC 1차 연합 실무그룹 미팅] 결과 공유

2023년 04월 18일

일시: 2023년 4월 06일 (목) 오후 2시~6시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3년도 1차 실무그룹 미팅을 4개 실무그룹(ESG, 인권, 환경, 반부패) 연합으로 개최했습니다. 유연철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제12차 CEO Study Report 주요내용 및 2023 글로벌 ESG 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인권 분야 공급망 실사 유의점', 법무법인 광장의 '환경 분야 공급망 실사 유의점', 그리고 DRB동일과 LG디스플레이의 기업 공급망 실사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그룹 참여시간 ESG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 1. 인사말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참여 회원사에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그룹의 운영 의의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미팅 주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및 각국의 공급망 실사법과 같은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기업들은 ESG 경영을 위한 기본적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ESG 요소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기업과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한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실무그룹을 통해 각 회원사의 고민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UNGC도 ESG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 2. 제12차 CEO Study Report 주요내용 및 올해 ESG 전망 발표

UNGC 한국협회 이선미 팀장은 128개국 2,600여 명의 CEO 조사를 기반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액센츄어가 공동 발간한 제12차 CEO Study Report의 주요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팬데믹과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회복탄력성 구축이 요구되며, 이러한 위기 극복 및 SDGs 달성을 위한 CEO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회복탄력성 구축이며, 이 회복탄력성 구축 요소를 △기업 전략 △인적자원관리 △공급망과데이터 △기업생태계 조성 등 네 범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CEO들의 10가지 정책제언을 전달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이 UNGC 자료 및 다양한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2023 글로벌 ESG 전망을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주목할 10가지 ESG 이슈로 △규제 및 공시 대응 강화 △ESG 데이터 관리 강화 △Net-zero 실질적 이행 강화 △에너지 전환 지속 △생물다양성 △공급망 혁신 요구 가속화와 중소기업 지원 △공정한 전환 이행 강조 △임금 공정성 부각 △임직원 내재화 및 ESG 기업 문화 △기업 청렴성 및 반부패 강화를 꼽으며, 각 이슈의 글로벌 동향 및 주요 개념과 이니셔티브 등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관련된 Academy, Accelerator, 개정된 COP 정책, 자료 등 회원사의 ESG 내재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UNGC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선미 팀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 3. 공급망 실사법 동향 및 국내 기업의 시사점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먼저 공급망 실사법제의 국제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권 실사로 시작된 실사법이 현재 환경 및 거버넌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성법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강제력을 가진 경성법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공시 및 보고 기준에서도 실사 여부를 포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서 제시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protect)-기업의 인권존중 책임(respect)-효과적 구제 접근(remedy)’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인권 실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인 인권정책, 인권실사, 구제의 제공 중 인권실사에 대해 “인권 위험을 식별하여 내부 경영에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및 검증 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인권 실사에 대한 오해(정의, 범위, 필요성, 비용)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인권 경영 시스템화, 인권 영향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의 부속서에 소개된 15가지 환경기준 세부 내용과 이에 대응되는 국내법을 함께 소개 하며 국내기업이 실사 이행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내법 준수 시 EU 지침의 대부분이 충족되지만, 특히 생물다양성보전, 멸종위기종 보호 등 기업활동중에 간접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법에 유의하여 실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실사의무 내재화, △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및 완화, △현실적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고충처리 절차, △모니터링, △실사의무 이행 내용 공개, △기후변화 대응 등 각 환경 실사 의무 사항에 따른 필요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사를 위한 준비사항 중 특히 △업종, 규모, 실사범위 확정 △사규 제·개정을 통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계약시 파트너사에 자료 요구 근거 마련의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여 실사에 대응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준비 및 보고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

#### 4. 공급망 실사 기업 사례 발표 - DRB동일, LG디스플레이

DRB동일의 박일한 매니저는 중견기업,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실사 과정을 공유 하였습니다.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5단계 시스템(정책 및 행동강령 제정, 협력사 분류, 협력사 평가 요청, 현장실사 진행, 시장행동 지원)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23년 협력사 ESG경영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언에서는 협력사의 ESG개념과 인식의 부족, 이에 따른 설문기반의 단계적 학습과 소통의 중요성을 전했으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 제시와 ESG 데이터 관리 및 지표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 산업별, 업종별 특수성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박태희 팀장은 공급망 ESG실사 관리체계 현황을 공유 하였습니다. LG디스플레이 내 공급망 실사 관리 행동규범을 시작으로 고객사의 LG디스플레이 대상 ESG실사 참여 절차, 협력사 ESG실사 교육 및 이행가이드와 더불어 본격적인 실사에 있어 응답 방식의 접근성 향상, RBA방법론에 따른 high-risk 현장 실사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협력사 스스로가 ESG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협력사를 대상으로 Case-study를 공유 및 학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급망 실사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SCA라는 ESG평가 및 실사 관리 프로그램의 실행 절차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DRB동일 박일한 매니저



LG디스플레이 박태희 팀장

## 5. 참여 회원사간 현황 공유

실무그룹 그룹 토의 및 네트워킹 시간에는, 참여 실무진이 공급망 실사 이행 및 준비 현황 등 각 기업의 ESG 현안을 공유하고, 각 실무그룹 Co-chair의 소개 및 토의 결과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ESG 실무그룹**에서는 ▲ESG 관련 KPI 설정 방식 결정 ▲글로벌 보고표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 현황 ▲ESG 인력 부족의 문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선 ESG 이행 ▲ESG 거버넌스 과제 ▲리더십의 ESG에 대한 관심 환기 등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023년도 ESG 실무그룹의 Co-chair는 KB증권 송준호 부장과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지영 수석입니다.

**환경 실무그룹**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보 ▲높아지는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RE100 이행 기업에의 긍정적 영향 ▲기후공시 요구 범위 확대(Scope3) ▲협력사 ESG 역량 강화 및 교육 등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023년도 환경 실 실무그룹의 Co-chair는 포스코이앤씨 공병수 차장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종우 책임 매니저입니다.

**인권 실무그룹**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실사 요청 및 대응 ▲인권 지표 설정 방법 ▲자회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동기부여 방법 ▲국내외 법제 충돌에 따른 대응 방향 ▲인권 실사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권 실무그룹의 Co-chair는 한국콜마홀딩스 김종철 국장과 한국철도공사 박희숙 차장입니다.

**반부패 실무그룹**에서는 ▲리더십 및 이해관계자의 반부패 관련 업무 이해도 및 관심도 제고 방안 ▲협력사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반부패 이슈 대응 차이 등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023년도 반부패 실무그룹의 Co-chair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인수 과장과 동아쏘시오 홀딩스 신지원 책임입니다.



KB증권 송준호 부장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지영 수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지원 책임



포스코이앤씨 공병수 차장



한국콜마홀딩스 김종철 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인수 과장



2023년도 실무그룹 2차 미팅은 6-8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2,3차 미팅은 각 실무그룹별로 별도 일정 및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니, 연초 신청하셨던 실무그룹별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미팅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ESG 실무그룹: 이상현 과장 (070-4327-9771,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환경 실무그룹: 김예영 연구원 (02-6954-2148,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인권 실무그룹: 박영하 과장 (070-4327-9767,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반부패 실무그룹: 장한별 과장 (070-4327-9768,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2. [Monthly Insights 4 월호] 기업 여성 리더십과 성평등 제고 노력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31 | April 2023

웹에서 보기

# Monthly Insights



### ■ 목차 ■

1. 성평등과 비즈니스 그리고 실사 고려사항
2. 제2회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행사
3. 전문가 인사이트 | 『신명희 | 신한금융지주 최고디지털책임자(CDO) 겸 부사장, 이현승 | 걸스인텍코리아(Girls in Tech Korea) 지부장』
4.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5.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 ■성평등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은 더 큰 사업 성공을 경험합니다. 점차 더 많은 기업들이 리더, 소비자, 사업가 및 노동자로서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과 소녀들이 번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운영 및 공급망에서 여성 차별적 관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회사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성폭행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Too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성희롱을 없애기 위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 **운영 리스크:** 기업이 성 차별적인 관행을 목인할 경우 전반적으로 직원 이직률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수익 감소와 인건비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성 차별은 직원 근속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평판 및 브랜드 리스크:** 소비자, 시민사회,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성 차별적 캠페인은 브랜드 및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평판은 새로운 인재들이 지원하는 것을 가로막고, 기존 직원들을 떠나게 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인적구성과,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적 리스크:** 투자자와 은행에 의한 투자 회수 및 회피(ESG 투자의 강화 흐름)는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며, 주주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Monthly Insights 4 월호에서는 비즈니스 성평등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여성 리더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 전문가 인사이트

### '혁신은 다양성의 생태계로부터 - 여성 테크 리더로 살아가기'

본 전문가 인사이트는 3월 10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한국거래소(KRX)-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국제금융공사(IFC) 한국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Ring the Bell for Gender Equality' 행사에서 진행된 발표와 질의응답을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김명희

| 신한금융지주 최고디지털책임자(CDO) 겸 부사장

## ‘STEM 분야에서의 여성 리더십’

이현승

| 걸스인텍코리아(Girls in Tech Korea) 지부장



이현승 지부장(걸스인텍코리아(Girls in Tech Korea) 지부장 겸 텔레파씨(TELEPASEE) 공동창업자 및 최고운영책임자)은 여성의 리더십과 여성들이 겪는 무의식적 편견에 대해 공유하며, 다양성과 공정성·포용성을 위한 기업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 리더십의 재정의, 아시안 여성 리더의 필요성

Fortune 500대 기업 대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은 백인 남성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또한, 흑인 남성 리더의 경우 얼굴이 둥글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리더가 많았으며, 여성 리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리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재정의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무의식 속의 편견을 깨고,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성별, 나이, 인종, 종교, 장애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고유성과 사회 집단의 특성 등이 반영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고유성과 아시안이라는 집단의 특성을 가진 여성 리더를 발굴하여, 아시안 여성들의 롤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최고디지털책임자 겸 부사장의 여성 테크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공감능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3 Core Skills, 이현승 걸스인텍 코리아의 지부장의 여성 리더십의 재정의와, 아시안 여성 리더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미국 재무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부 지침을 내놨다. 한국은 현재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전기차' 美IRA 세부지침 나왔다...韓한숨 들렸지만 우려 여전

☞ IPCC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2040년 이내에 섭씨 1.5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2020년 초 이후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은 500Gt, 섭씨 2도 아래로 제한하기 위한 양은 1150Gt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는 '단기 대응'이 꼽혔다. IPCC는 2040년까지의 단 기경로가 중요하다고 하며 에너지·산업·교통·인프라·식품 등의 분야에서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IPCC "산업화 이후 1.1도 상승... 10년간 대응 못 하면 돌이킬 수 없어"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에서는 △ EU, 리튬 등 핵심원자재 '제 3 국' 의존도 65% 아래로...CRMA 초안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발표 등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본부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업의 4가지 변화



2023 UN Water Conference와 기업의 약속

본부 소식 코너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 UN Water Conference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약속에 대한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의준 연구원, 직통번호 070-4327-5051)

[자세히 보기](#)

### 3.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1 기 - 1 차 세션 등록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1 기(이하 GEK 1 기)’ 1 차 세션을 오픈합니다!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는 여성역량강화 인식 제고와 여성 리더십 증대를 위하여, 2023 GEK(Gender Equality Korea)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를 런칭하였습니다.

5 월 9 일(화) 진행되는 1 차 세션에 여성 리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5/9(화) 14:00 - 17:00
- 장소: 위워크 서울스퀘어점 4 층 타운홀
- 연사: 최인아 대표(現 제일기획 상임고문 & 최인아 책방 대표)  
손지애 대사(現 외교부 문화협력대사 & 이화여대 초빙교수)

\* 본 프로그램은 기존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를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란?

**대상** 고위직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경력 10년차 이상 여성 실무진

**활동 내용** 두 트랙(Two Track) 네트워킹 프로그램  
① 주제별 강연 및 소그룹 토의(PACT)  
②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동

### ◆ 주제 및 소그룹 토의(PACT)

주 제		세부 내용
P	Place	『직장 내 ‘나’ 포지셔닝하기 - 직장에서 ‘나’ 의 중요성』
A	Absorb	『직장 내 여성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
C	Conflict	『직장 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 갈등과 극복방법』
T	Transform	『직장 내 차별적 문화 바꾸기: 알리쉽(allyship)과 남성 직원의 지지 확보』

\* 강연주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

PACT 참여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진행

여성 인권 영화 관람, 플로깅, 애프터눈 티, 독서토론 등 교류활동





##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1기

### ◆ 프로그램 일정

구 분	날 짜	시 간	주요 내용
1차	5/9(화)	14:00 - 17:00	강연 및 주제 토론
2차	6/13(화)	14:00 - 17:00	강연 및 주제 토론
특별세션	7/11(화)	14:00 - 17:00 *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변동 가능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교류활동
3차	8/8(화)	14:00 - 17:00	강연 및 주제 토론
4차	9/12(화)	14:00 - 17:00	강연 및 주제 토론

\* 매월 둘째 주 화요일

### ◆ 프로그램 구성

- 14:00 - 14:10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
- 14:10 - 15:40 주제 강연 및 토크콘서트
  - \* 연사 : 최인아 대표(現 제일기획 상임고문 & 최인아 책방 대표, 前 제일기획 부사장)
  - 손지애 대사(現 외교부 문화협력대사, 前 아리랑 국제방송 사장)
- 15:40 - 16:50 소그룹 토의 및 네트워킹
- 16:50 - 17:00 일정 안내 및 종료

### ※ [1차 세션] 연사 소개

#### ▪ 최인아 대표

- 現 제일기획 상임고문 & 최인아 책방 대표
- 前 제일기획 부사장, 前 제일기획 제작본부 본부장
- 前 제45회 칸국제광고제 심사위원



#### ▪ 손지애 대사

- 現 외교부 문화협력대사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前 아리랑 국제방송 최고경영자, 사장
- 前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前 CNN 서울지국장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영하 과장 (070-4327-9767, yhpark@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 4. UNGC 한국협회 2023 정기총회(4/6) 결과 공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3 년도 정기총회를 4 월 6 일(목)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룸(I+II)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180 여 명의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 안건을 의결하고, 반기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의 특별강연과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ure Ambition Accelerator, 이하 CAA) 프로그램의 Round II 런칭 세레머니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창립 15 주년을 맞아, 많은 회원사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전년도를 회고했습니다. 또한 “UNGC는 전 세계적으로 2 만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해 회원사 수가 300 개가 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UNGC 에 동참하는 회원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회원사들이 내실 있는 ESG 경영과 더불어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해부터 더욱 본격화되는 ESG 흐름 속에서 각 회원사가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올해 정기총회는 이동건 회장의 주재 및 유연철 사무총장의 보고를 통해 △전기 회의 의사록 채택 △2022 년 사업, 결산, 감사 보고 및 의결 △2023 년 사업 계획, 예산안 보고 및 의결 △이사 변경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사는 이를 청취한 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이사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 △웨어밸리 손삼수 대표이사 △법무법인 광장 윤영선 상임고문 △유한김벌리 진재승 사장 △SK 네트워크 최신원 회장 △대우학원 추호석 이사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태식 부회장이 연임하였고,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식 상근부회장이 사임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이어, 제 8 대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이 <글로벌 위기 속 기업과 UNGC 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먼저, 지난 3월 10일 개최된 'Ring the Bell' 타종 행사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는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성별 임금 격차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여성의 권익을 정의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도 유리천장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기문 명예회장은 “지구의 기후환경이 파괴된 상태에서 발전이나 번영을 논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가 말로 우리 인류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는,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인류 공동의 지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명예회장은 지난 3월 개최된 IPCC 58차 총회와 2023년 유엔 물 회의의 경고를 전하며 “우리는 생존적 차원에서 이 경고에 주목하고 인류사회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합의의 성격이 강한 SDGs 목표 중에서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특별히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하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문명사적 대전환에 따른 고통과 인내가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으나, 다른 우회로가 없다”고 기후위기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SDGs의 17개 목표 대부분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성취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혁신과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지금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생존과 발전의 험로를 열어가고 있다”고 묘사하면서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낸 우리 기업들이 오늘의 위기도 반드시 훌륭하게 극복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회원사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의 Round II 런칭을 기념하는 세레모니가 진행되었습니다. CAA 프로그램은 기업이 과학 기반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을 가속화 하기 위해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UNGC의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6개 회원사가 참가 신청을 했으며, 세레모니에는 11개 회원사(△CJ 제일제당 △한국콜마 △포스코이앤씨 △동아쏘시오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LG 디스플레이 △HLB △현대두산인프라코어 △LS 일렉트릭 △BGF △SK 가스)가 참석했습니다. CAA 프로그램은 4월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사의 관심 속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는 UNGC 한국협회 회원사들과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유하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에도 많은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 5.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보고서 국문본 발간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기업책임경영에  
아동권리 내재화하기



2022년 10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0주년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금년 3월 해당 보고서의 국문본이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유니세프-세이브더칠드런이 수립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10주년을 계기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재계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아동권리가 지속가능한 기업책임경영에 통합되는 것과 관련된 진전사항을 검토하며, 향후 10년에 걸친 행동 가속화를 위한 핵심 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주요한 부정적 영향이 아동노동만이라는 통상적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러한 가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를 중시하고, 아동권리를 반영한 경영원칙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유니세프 아동권리 및 비즈니스 부문 전 책임자인 Andrew Mawson 과 멕시코 몬테레이대학교 법과·사회과학대학 교수이자 인권·기업연구소장인 Humberto Cantú Rivera 및 컨설턴트인 Subajini Jayasekaran 이 공저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 본부소식

### 1. UNGC 아카데미 심화과정: 기업 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평가



4 월 20 일,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UNGC 가 공동 참여한 반부패 아카데미 심화 과정 (Anti-corruption deep dive session)이 진행됩니다.

본 세션은 기업이 직면한 부정부패 행위의 위협에 대한 관리와 평가 방법을 제공합니다.

#### 본 심화 과정의 학습 목표:

- 부패 리스크 평가의 중요성
- 부패 리스크 평가의 핵심 요소
- 기업 내 부정 부패 척결 과정의 도전 과제와 우수 실천 사례
- 중소기업의 부패 리스크 평가 적용 방법

\*본 세션은 영어로 진행되며, Live session 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2. 2023 UN Water Conference 와 기업들의 약속



‘Open Call to Accelerate Water Action’ 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은 기업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물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최소 100 곳의 물 스트레스 유역에 활발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전 세계 130 개국에서 운영되며 200 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 50 개 사가, 2023년 3월 22일 유엔 수자원 컨퍼런스에서 Business Leaders’ Open Call for Accelerating Water Action 을 개최했습니다. ‘The Open Call for Water Action’의 목표는 전 세계 민간 부문이 직접 수자원 위기를 해결하고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 6 번 ‘물과 위생’의 달성을 촉진하는 것 입니다. 이는 또한 유엔 수자원 컨퍼런스의 주요 결과인 물 행동 아젠다에 대한 민간 부문의 하나된 뜻을 전달합니다.

Open Call for Water Action 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은 물 회복탄력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글로벌 운영 및 공급망 구축을 실현하여 부문간의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물 스트레스 유역 100 곳에 물 보충 및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 계획은 30 억명의 물 안보에 기여하고, 3 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집력 있는 연합 행동이 필요하다. 기업은 세계 최대의 물 사용자로서 수자원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보장해야한다. 우리는 기업이 Open Call for Water Action 을 통해 수자원 관리자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물 안보는 21 세기 가장 시급한 지속 가능성 문제 중 하나로 인도주의적, 환경적, 경제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0 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식수가 부족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인구 40%가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변화는 이러한 위험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물 부족, 오염 및 기후 변화로 인해 약 3 천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태평양연구소(Pacific Institute)의 회장 겸 CEO Water Mandate 의 책임자 제이슨 모리슨(Jason Morrison) “The Open Call for Action 은 물 부문에서 기업들의 협업과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Open Call 은 세계 각 지역의 주요 기업들을 모아 비즈니스의 운영 및 공급망 구축과 여러 연합 행동을 취하므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내기 어려운 수자원 관리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수자원 관리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Open Call 에 참여한 기업: AB InBev, ADM, ANDESS, AQUADAT, Arca Continental, AstraZeneca, Banka BioLoo Limited, Bayer, BIOAZUL SL, Braskem, Cargill, Coca-Cola Europacific Partners, Coca-Cola FEMSA, Colgate-Palmolive, Cristalina Saneamento, Crown Holdings, Inc., Cummins Inc., Danone, Diageo, DOW, DP World, DuPont, Ecolab, Elevate Textiles, Inc., ENGIE, FLSmidth, Gap Inc., Givaudan, GSK, HCL Technologies Limited, HEINEKEN N.V., Inditex, S.A., Inter IKEA Group, Johnson Matthey, Kelani Valley Plantations PLC, Kemira Oyj, KLT Filtration Ltd., Mahindra Group, MGM Resorts International, Microsoft, Nazava Water Filters, Netafim, Orbia, Penta Falcon, PJSC PhosAgro, Recogida General De Residuos y Aguas S.L, Reckitt, Solenis LLC, Starbucks, The Coca-Cola Company, The Crescent Textile Mills Limited, Veolia, VIATRIS, and Xylem.

Ecolab 의 CEO 크리스토퍼 백(Christopher Beck) “수자원은 비즈니스와 삶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20 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물 스트레스 구역에서 살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사업 성장을 촉진하고 인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물 회복탄력성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한다.”

Heineken N.V.의 CEO 돌프 반 덴 브링크(Dolf van den Brink) “우리의 물 관리 전략은 특히 물 부족 지역에서의 물 효율성, 순환성, 및 유역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다. 우리는 지난 10 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멕시코에서 활동하며 개인이 아닌 연합 행동이 더욱 체계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Open Call 은 공동 목표를 향해 기업들이 결속하여 대규모로 연합 행동을 주도하고, 모두의 물 회복탄력적인 미래를 위해 기여할 것이다.”

The Open Call for Water Action 은 CEO Water Mandate 가 주도하며 UNGC 와 태평양연구소(Pacific Institute)의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기업의 수자원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The Open Call 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케레스(Ceres), 국제수자원관리동맹(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 그리고 아쿠아 패드(AquaFed)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The Open Call 은 Water Resilience Coalition 전략의 일부로서, 기업은 2023 년 3 월 16 일에 론칭된 Water Resilience Coalition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Open Call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 플랫폼은 물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6 번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소 10 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Water Resilience Coalition 과 미국 국제 개발 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의 5 개 회원사들은 지난 주 해당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펀드에 1 억 3 천 9 백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는 8 개국의 5 백만 명의 사람들의 물 사용과 위생 계획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 1. 기업 소개

LG 디스플레이는 1987년 TFT-LCD 개발을 시작으로 OLED, IPS 등의 차별화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책임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환경, 사회 그리고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합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9대 ESG 핵심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ESG 영역별 분과위원회(△환경기술 △인권경영 △지배구조)를 설립하여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9대 핵심 영역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u>ESG Slogan</u>	<p><i>True Display for a Sustainable Future</i>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참된 디스플레이</p> <p>ESG를 진정성 있게 수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LG디스플레이의 의지</p>										
<u>ESG Core Value</u>	<table border="0"><tr><td style="text-align: center;"><b>친환경 기술 혁신</b></td><td style="text-align: center;"><b>인간존중 가치 최우선</b></td></tr><tr><td><b>기후 대응</b>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td><td><b>사업장 안전</b> 안전한 사업장 구현</td></tr><tr><td><b>자원 순환</b>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자원 순환 선도</td><td><b>협력사 관리</b> 협력사 ESG 관리</td></tr><tr><td><b>유해 물질 관리</b> 선제적 유해물질 관리</td><td><b>인권 경영</b> 인권 경영 내재화</td></tr><tr><td><b>제품 책임</b> 기술 혁신 기반 친환경 제품 시장 선도</td><td><b>인적 자본</b> 임직원 성장 및 행복 추구</td></tr></table>	<b>친환경 기술 혁신</b>	<b>인간존중 가치 최우선</b>	<b>기후 대응</b>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b>사업장 안전</b> 안전한 사업장 구현	<b>자원 순환</b>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자원 순환 선도	<b>협력사 관리</b> 협력사 ESG 관리	<b>유해 물질 관리</b> 선제적 유해물질 관리	<b>인권 경영</b> 인권 경영 내재화	<b>제품 책임</b> 기술 혁신 기반 친환경 제품 시장 선도	<b>인적 자본</b> 임직원 성장 및 행복 추구
<b>친환경 기술 혁신</b>	<b>인간존중 가치 최우선</b>										
<b>기후 대응</b>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b>사업장 안전</b> 안전한 사업장 구현										
<b>자원 순환</b>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자원 순환 선도	<b>협력사 관리</b> 협력사 ESG 관리										
<b>유해 물질 관리</b> 선제적 유해물질 관리	<b>인권 경영</b> 인권 경영 내재화										
<b>제품 책임</b> 기술 혁신 기반 친환경 제품 시장 선도	<b>인적 자본</b> 임직원 성장 및 행복 추구										
	<p><i>ESG Due Diligence/Governance Risk &amp; Compliance</i></p> <p>이해관계자 소통 및 투명한 정보 공개</p>										

LG 디스플레이는 'True Display for a Sustainable Future'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친환경 기술 혁신'과 '인간존중 가치 최우선'이라는 Core Value를 설정하고, △기후 대응 △자원 순환 △유해 물질 관리 △제품 책임 △사업장 안전 △협력사 관리 △인권 경영 △인적 자본 △이해관계자 소통 및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9대 핵심 영역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SG 추진 체계



LG 디스플레이는 ESG 위원회 중심의 ESG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비즈니스 활동 및 기업 운영과 관련된 ESG 이슈를 검토 및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ESG 위원회를 개최하여 ESG 정책 및 전략을 심의/승인하고 ESG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역별 ESG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9 대 핵심 영역별 Champion(C-Level)을 선정하여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Roadmap 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사 ESG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ESG 사무국을 통해 ESG 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사례

### 3-1.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기술혁신 선도

LG 디스플레이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 구성, 저탄소 생산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모니터링 강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제조공정 시 사용되는 공정가스 감축을 위해 2018 년부터 약 508 억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감축 설비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디스플레이 식각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가스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의 모든 사무공간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 국내외 생산 현장의 수요 전력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G 디스플레이는 수자원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이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낮은 농도의 폐수를 자체적으로 정화해 재이용하고 있으며 2018 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를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노력을 통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약 1억 3천만톤(취수량 대비 재이용률 174%)의 물 사용량을 감축하였고, 국내 사업장 탄소배출량은 2014년 대비 무려 387만톤(감축률 50%)까지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 및 물 정보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한 'CDP Korea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5년 연속 '물 경영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업 부문별 상위 4개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클럽'을 7년 연속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LG 디스플레이는 리스크 대응 차원의 ESG 활동을 넘어,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ESG-Biz. 간 연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LG 디스플레이는 IT용 하이엔드 패널의 재활용률을 업계 최고 수준인 약 80%까지 개선하고, 차량용 P-OLED와 프리미엄 LTPS LCD의 소비전력을 감축하며 글로벌 검사·인증 기관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로부터 친환경 제품 인증(Eco Product)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LG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PAS 2050)에 맞춰 OLED 패널의 제품 생산과 출하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하게 검증하며 글로벌 친환경 인증기관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탄소발자국 인증과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친환경 제품 인증 모두 업계 최초의 성과로서 기후 위기 극복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LG 디스플레이만의 친환경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2. 인간존중의 가치에 기반한 인권경영체계 구축

2022년 8월, LG 디스플레이는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구성원은 물론 고객과 협력사,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펼칠 것을 선언하며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공표하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준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보건, △협력사 인권경영 관리 등 10 개 영역에 걸쳐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협력사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RBA 기준을 준용한 협력사 ESG 평가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2022 년 국내외 570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SAQ(Self-Assessment Questionnaire, 자기진단설문)를 실시하였고, 이 중 56 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협력사의 ESG Data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 대상 ESG 교육 Webinar 를 실시하는 등 인권존중의 가치 실현과 사업 경쟁력 및 고객 대응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 3-3. ESG 체계화를 넘어 내재화의 단계로 진화




LG 디스플레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ESG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 년 ESG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영역별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실무진과 조직책임자간의 Consensus 를 구축함으로써 ESG 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Compliance(준법)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LG 디스플레이만의 투명하고 건전한 ESG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ESG 경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LG 디스플레이는 ESG 가 자사의 의사결정 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화’의 단계를 넘어,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매년 ‘LGD ESG Festival’을 개최하여 조직 책임자(영역별 Champion)를 대상으로 ESG 경영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실무자(관리조직/과제 멤버 등) 등을 대상으로는 ESG 활동에 대한 격려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역시 U-ESG(Union-ESG) 활동을 추진하며 전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ESG 내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p><b>Good Health and Well-being</b></p> <p><b>3 GOOD HEALTH AND WELL-BEING</b></p>  <p>임직원, 자회사, 협력사 등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li> <li>· 화학물질 도입 관리 프로세스 구축</li> <li>· 로성보호 프로그램 운영</li> <li>· 임직원 및 자회사(나눔누리) 임직원에게 의료비 지원</li> </ul>	<p><b>Quality Education</b></p> <p><b>4 QUALITY EDUCATION</b></p>  <p>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대상 IT 교육환경 지원</li> <li>· 취약계층 맞춤형 꿈 지원</li> <li>· 저소득층 영재 청소년 지원</li> </ul>	<p><b>Clean Water and Sanitation</b></p> <p><b>6 CLEAN WATER AND SANITATION</b></p>  <p>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용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법적 배출 기준 농도 대비 70% 수준의 강화된 사내기준을 설정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li> <li>· 하수처리수 재이용 프로젝트 수행</li> <li>· CDP Water 우수기업</li> </ul>	<p><b>Affordable and Clean Energy</b></p> <p><b>7 AFFORDABLE AND CLEAN ENERGY</b></p>  <p>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가스 고효율 배출저감 기술 개발</li> <li>· 국내 사업장 사무동 전력사용량 신재생 에너지 전환</li> <li>· 에너지 사용 절감 전문 조직 구성</li> </ul>
<p><b>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b></p> <p><b>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b></p>  <p>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지향적 마케팅 활동 추진</li> <li>· OLED Space 운영으로 OLED 우수성 전파</li> <li>· 사회사형 표준사업장 나눔누리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li> </ul>	<p><b>Climate Action</b></p> <p><b>13 CLIMATE ACTION</b></p>  <p>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감축 설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li> <li>· 온실가스 감축활동 진행</li> <li>· 유형별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 및 대응명안 수립</li> </ul>	<p><b>Life on Land</b></p> <p><b>15 LIFE ON LAND</b></p>  <p>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Z 수내천 귀릉나무 생태 숲 조성</li> <li>· 파주사업장 인근 산림 환경 개선 활동</li> </ul>	<p><b>Partnerships for The Goals</b></p> <p><b>17 PARTNERSHIPS FOR THE GOALS</b></p>  <p>환경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 참여</li> <li>· UNGC, RBA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li> <li>· NGO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진행</li> </ul>

	<p>LG디스플레이는 CDP에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관리 등 지속가능성 성과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7년 연속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편입되었으며, '물경영' 부문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업을 유지하여 당사의 환경영향관리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p>
	<p>LG디스플레이는 2021년부터 RBA와 RMI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BA는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이니셔티브이고, RMI는 RBA 산하의 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로, 인권, 환경 문제가 없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광물 구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공급망내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국내외 사업장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도 RBA 행동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경영활동과 공급망 전반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p>
	<p>TCFD는 기후변화가 재무/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금융 및 투자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국제기구인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출범시킨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TCFD 지지선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1. SK 실트론, UNGC 가입...ESG 경영 강화



- SK 실트론은 3 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밝힘.
- 앞으로 SK 실트론은 매년 이행보고서(CoP)를 통해 UNGC 의 핵심가치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 개 분야의 10 대 원칙을 준수하고, UN 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
- 내년 EU 공급망 실사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ESG 경영 핵심추진과제로 '글로벌 수준의 인권실사'를 계획 중이며, 이번에 가입한 UNGC 에서 가이드한 인권실사 지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

뉴스

## 2. 한국청과, 업계 최초 UNGC 가입



- 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
- UNGC는 현재 162개국 2만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사 중 우리나라 농업과 농산물 유통산업 관련 민간기업으로는 한국청과가 유일.
- 한국청과는 이번 UNGC 가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농민과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 사회공헌 활동 강화 ▲농산물 유통산업을 선도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

농민신문

### 3. 포스코그룹, 여성 과장 23%…최고 경영진 여성 비율 급증 기대



- 포스코그룹이 향후 최고 경영진의 여성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실무진인 과장급 직원 중에서 여성비율이 20%를 돌파해 일명 ‘유리천장’ 뚫기가 가장 기대되는 그룹임.
- 2018년 15.4%에 불과했던 해당 부서 여성 비율은 2018년 15.4%, 2019년 18.1%, 2020년 19.3%, 2021년 22.6%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임.
- 아직 최고 경영진에서 여성비율은 낮음. 그러나 주니어 관리자 직급에서 20%가 넘는 여성 비율은 향후 포스코그룹에서 여성 최고 경영진 증가를 시사해 여성인력 육성에 기념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임.

#### 4. 포스코건설, 포스코이앤씨 사명 변경



- 포스코건설이 내년 창립 30 주년을 앞두고 20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POSCO E&C)로 사명을 변경.
- '이앤씨(E&C)'는 에코 앤 챌린지(Eco & Challenge)의 약자로,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에코)과 더 높은 삶의 가치를 실현하겠다(챌린지)는 뜻을 담고 있음.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다지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그린 라이프 워드 더샵(Green Life With The Sharp)'의 이미지도 반영함.
- 포스코건설은 사명변경을 계기로 저탄소철강 분야인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의 EPC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함. 또 신재생 에너지 시장 선점, 그린 라이프 주거모델 상품화 등 친환경·미래성장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경향신문

## 5.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전기차에 24兆 투자...“글로벌 판매 톱 3 목표”



- 현대자동차그룹이 11일 경기도 화성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글로벌 전기차 톱 3’를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24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은 오는 2030년 151만대(수출 92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미국 조지아공장과 인도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규모는 364만대까지 늘릴 계획.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기존 공장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전환해 생산량을 확충할 전략.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설비 효율화와 친환경 시설을 구축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공장대비 약 20% 저감하고, 설비 국산화율을 99%로 올려 국내 중소·중견제조업체와도 수익을 나눌 계획.



# 회원사 안내

## 1. 신규·재가입 회원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6 곳입니다.

- 효성아이티엑스
- 넥센타이어
- 위메이드
-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주)
- 글로벌이앤비
- 인라이트벤처스(주)

## 2. COP/COE 제출회원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2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사)한국국제봉사기구
- (주)HLB 테라퓨틱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3년도 개정 COP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 회원

2023년도 개정 COP 정책 도입에 앞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초,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는 오는 2023년부터 영리 회원사들이 모두 응답해야 하는 COP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한국협회에서는 총 13개의 회원사가 참여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가 제출한 COP는 UNGC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고무벨트
- DRB 동일

- DGB 금융지주
- 만도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애규온캐피탈
- HK 이노엔
- 유한킴벌리
- 콜마비앤에이치
-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국콜마
- 한국콜마홀딩스
- 효성첨단소재

## 개정 COP 정책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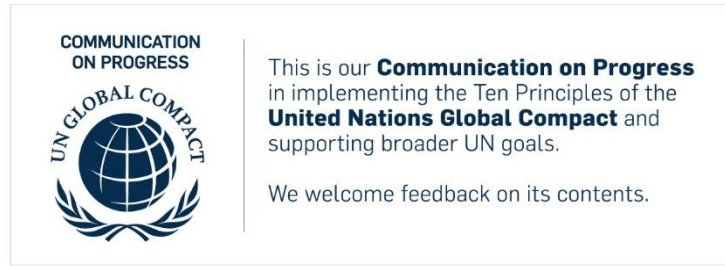
\*비영리 회원사는 내년도 동일하게 기존 COE 정책대로 COE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